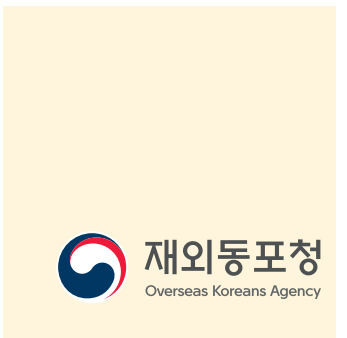




특집 _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미국·호주·뉴질랜드 차례로 방문
정책 돋보기 _ 재외동포청,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
이슈 인터뷰 _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올해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실행 컨트롤 타워 원년”



3 · 1운동과 적십자정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독립운동가 이관용(1891~933). 우리나라 최초의 스위스 취리히대학 철학박사인 그는 1916년 취리히대학에 입학해 1923년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한 재외동포였다.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부위원장으로 김규식을 도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며, 1920년 3월 8일 대한적십자회 유럽지부장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낸다.

서신에는 일제가 3·1운동 당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일본 적십자사는 조선인 기부자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았음에도 한국인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항의서와 대한적십자회에서 발행한 3.1운동의 모습이 담긴 영문 사진첩 '한국 독립운동'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했으니 이를 승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적십자회가 인정받으면 임시정부 역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중 하나인 '단일'(Unity)의 원칙에 따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가 존재한다. 이 점에 착안한 고종황제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칙령 제47호로 창설한 것도 국가를 지키려고 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적십자사가 대한제국이 설립한 대한적십자사를 흡수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한적십자회를 승인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에서 자주 국가라는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방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조직된 대한적십자사는 6·25전쟁 시 미국, 스웨덴 등 35개국 적십자사로부터 원조를 받아 피란민을 구호했던 역사를 넘어 이제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전 세계 인도적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 전시된 이관용의 서신을 보면서 100여 년 전 한반도는 물론 중국, 미국, 멕시코, 쿠바 등 전 세계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노고를 기억해 본다. **창**





| | |
|--------------------|---|
| 02 창을 열며 | 3·1운동과 적십자정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
| 04 특집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미국·호주·뉴질랜드 차례로 방문 |
| 06 정책 돋보기 | 재외동포청,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 |
| 08 이슈 인터뷰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올해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실행 컨트롤 타워 원년” |
| 10 한민족 공감 | 미주 한인이민사 다큐 ‘무지개 나라의 유산’ 교육 콘텐츠로 제작 재외동포 차별 함께 맞선 일본 시민 조명하는 다큐 영화 만든다 |
| 12 글로벌 코리아 | 김병주 MBK 회장, 미국 하버포드대 이사회 의장 맡아 미국 NBC 방송 보도국 총괄부사장에 한인 2세 캐서린 김 ‘한인 1호 영주권자’ 정호현 쿠바 한글학교장 |
| 14 인터뷰 | 정영순 신임 대한고려인협회장 “상호 교류 네트워크 확대할 것” |
| 15 주목! 차세대 | 사할린 한인 후손 일러스트 작가 정마리나 “누군가에게 행복이 전해졌으면” |
| 16 지구촌 통신원 | 한인 첫 이민 103년 만에 한국-쿠바 수교 |
| 18 뉴스 속으로 | 미국 뉴욕주의회, 삼일절 맞아 ‘유관순의 날’ 제정 외 |
| 20 문화유산 | 전남 해남 대흥사 구곡팔봉 두륜산에 안긴 호국 성전 |
| 22 OKA 뉴스 | 한국-베트남 자녀 모국 체험 방문 활동 격려 외 |
| 24 동포 캘린더 | 쿠바 최고 예술대학에 3월부터 한국어 수업 생겼다 외 |
| 25 기고문 | 경제대국 성장 저력, 삼일 정신에 담겼다 문영숙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작가) |
| 26 재외동포청 공지 | 2024 재외선거 안내문 |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 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차례로 방문 동포들 민생현장 찾아 ‘소통의 장’ 마련하고 민원 청취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민생 현안 파악을 위해 2~3월에 걸쳐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청장은 먼저 2월 26~29일 나흘간 미국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청장은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것을 시작으로 동포 간담회 및 한글학교 교사 등 한인 교육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동포 정책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LA에서는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한인 경제인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특히 현지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집중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민생을 파악하고 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동포사회, 차세대 육성 ·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건의

한인 경제인들은 한인타운 지도 제작,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격년 개최, 현지화하는 한인 차세대 경제인에 대한 대회 참여 기회 확대, 한국 청년 인재의 미국 진출 지원, 동포 상공인 간의 경제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동포간담회에서 동포사회의 지위를 향상하고 한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동포청이 추진하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의 외국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참석 동포들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차세대 정체성 함양은 동포청의 필수 업무”라며 “교과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사들은 미국 주별로 한인교육위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기존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동포들은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취득 간소화 및 취득 연령 하향 조정, 해외 한인 입양인 등 소외 동포 지원, 동포단체 지원 명세 공개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정책과 동포들을 보듬는 정책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 동포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도 독려했다.

시드니·오클랜드서는 재외동포 기본계획 등 설명

이기철 청장은 이어 3월 12~15일 나흘간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한인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정 첫날인 12일 대양주 지역 중 재외동포 사회 규모 8만4천명으로 가장 큰 시드니에서는 한인회 관계자들과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현지 동포 100여 명을 한인회관으로 초청해 만찬 겸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 기본계획과 로드맵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대양주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시드니 외 다른 지역에서도 동포들이 참석하는 만큼 호주 동포사회의 전반적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호주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열어 재외동포청의 한글학교 지원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글 교육뿐만이 아닌 한인 정체성 교육의 거점인 한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대양주 지역 중 재외동포 3만1천명이 거주하는 뉴질랜드로 이동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동포 50여 명을 초청, 만찬 겸 간담회를 열고 현지 동포사회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현지 유력 정치인인 멜리사 리(다민족부장관, 6선 의원)를 만나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및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내서는 파독 근로자들 위로 간담회 개최

이 청장은 앞서 2월 23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파독 근로자 기념관'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 등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소외된 동포들을 보듬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 기념관 방문은 1월 30일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는 인천 함박마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청장은 먼저 기념관에 전시된 파독 근로자들의 사진과 소품 등 역사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어 파독 근로자들의 안부를 묻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춘동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회장과 파독 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의료혜택 확대, 형편이 어려운 파독 근로자의 귀국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파독 근로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각종 기념사업도 펼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



2



3



4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앞줄 왼쪽에서 10번째)이 2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중서부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3월 13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4.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이 2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파독 근로자 기념관'을 찾아 한 파독 광부의 고충을 들으며 위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한글학교 지원 강화” · “동반성장 집중”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동포 사회와 함께 이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국에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한국 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한글학교 1천462곳의 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3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13차례의 대통령 참석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200여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 현장 방문, 국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재외동포청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포사회에 근본적 이익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700만 재외동포와 동반성장을 추구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 등을 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우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의 주력이 이민 1세대에서 2, 3세로 교체돼 현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한인 정체성 강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차세대의 경우 혼혈 및 다중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가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재외동포에게 교육함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할 방침이다.

동포청은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15개국을 방문해 지역별·분야별·세대별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발전상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민간단체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발전상 동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 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자긍심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라며 “더욱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청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난해(141억원)보다 25.7% 증가한 177억원으로 배정해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및 운영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사의 역



1



2



3

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19억원)보다 44.6% 증가한 27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테디코리안 운영 개선,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 확대 등 정규 교육 강화, 재외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에 쓰일 전망이다.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 인식 개선 캠페인

동포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 등을 위한 '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파독 근로자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들을 각각 모국으로 초청해 예우하고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부 기조를 반영해 최근 확정된 범정부 중장기 종합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2024~2028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보듬기에 나선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초청 사업,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의 모국 방문 등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등의 내용을 한국 국·검정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재외동포 대상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실시

동포청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의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분야별 재외동포 초청·지원 사업 외에

도 코리아넷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첫 해외 개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를 내실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도 부여한다.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때 국제전화 사용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을 추가한다.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공서·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를 도입하고,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카카오휘와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며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참\]](#)

1. 2월 17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쿠바 현지인이다.
2.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모국을 방문한 20개국 한인 차세대 동포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운데)과 간담회를 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올해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실행 컨트롤 타워 원년”

5개년 기본계획 확정...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동포 지원 사업 집중”

“2024년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사업 실행을 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은 3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범정부 차원의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이 얼마 전 확정됐다며 이 같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3월 7일 외교부와의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앞서 열렸던 기본계획 심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기본 계획이 더 광범위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됐다”는 평가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중장기 재외동포정책의 기틀을 잡은 기본 계획 확정 후 “재외동포를 위해 근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과 현장 중심의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큰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

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5개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로 재외동포정책의 강화체계 확립이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동포정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내실화하며 범정부 정책 협의와 동포사회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동포정책의 두 번째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난해 140억원에서 올해 17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습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8년까지는 한글학교 운영비를 190억원까지 증액해 한글학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에도 나섰다.

재외동포청의 중점사업이다. 동포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동포 차세대가 모국을 올바르게 알고, 한인이라는 사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4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는데.

동포정책의 세 번째 정책 목표로 정했다.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이라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원폭 피해 동포, 다문화 가정 동포 등 그동안 소외돼왔던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난 상황의 피해 동포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동포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출입국과 체류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로 했다.

취임 후 줄곧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했다는데.

맞다.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동포 거주국 정부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분야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더욱 내실화하겠다. 편한 동포생활을 위해 민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특히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 개시할 예정이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하려고 한다. 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재외동포

1.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최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개최사를 하고 있다.
2.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3월 13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이스트우드시에 있는 한인마트를 방문해 동포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3.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해 9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소개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4.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3월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동포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 쌍방향적 협력을 추진하며 동포단체의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오가 있다면.

취임 후 일본·필리핀·태국, 미국 시카고·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호주·뉴질랜드 등지의 동포사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민생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을 알렸다.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면서 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민생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개국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이 사실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려고 한다. 이는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재외동포청의 2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동포사회에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아, 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을 보듬는 재외동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차세대 동포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재외동포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청이 되도록 힘쓰겠다.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을 비롯한 재외동포청의 역점사업들에 대해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이민사 다큐 '무지개 나라의 유산' 교육 콘텐츠로 제작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미주 공립학교 · 각국 한글학교에 배포

미주 한인이민사를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무지개 나라의 유산'과 음악 단편 영화 '하와이 연가'가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돼 미주 공립학교와 전 세계 한글학교에 배포된다. 두 다큐 영화를 제작한 나우프로덕션필름(대표 이진영)은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한 '2024 한국 바로 알리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우프로덕션필름은 북미 초중고 공립학교와 전 세계 한글학교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웹사이트 및 전자책 개발에 착수한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화 편집본을 비롯해 토론 주제와 퀴즈 등도 제공한다. 또 학생들이 직접 자기 가족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무지개 나라의 유산 템플릿'도 만든다.

웹사이트와 전자책은 한국어, 영어로 각각 제작되며 내년 상반기에 공개된다. 교육 콘텐츠 제작에는 다니엘 수에히사 하와이 카이 초등학교 교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최태성 역사 전문가,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다이애나 김 미국 조지타운대 아시아학과 교수 등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다큐를 제작한 감독이기도 한 이진영 대표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민 역사를 전 세계 학생들과 더 많이, 더 재미있게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K-콘텐츠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우프로덕션필름은 이번 공모를 기회로 꾸준히 이민사 자료를 취합하고 기록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남기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미주 한인 이민 120년 역사를 담은 음악 단편 영화 '하와이 연가'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이기장·장지연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제43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처음 관객을 만났다. 오는 5월 미국, 6월 한국에서 각각 개봉 예정이며 PBS-TV 하와이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영화 관련 상세한 소식은 나우프로덕션필름 사이트(www.theRainbowWord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나우프로덕션필름이 제작한 다큐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과 음악 단편 영화 '하와이 연가'의 홍보 포스터
2. 2022년 12월 15일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상영되는 '하와이 연가'

재일동포 차별 함께 맞선 일본 시민 조명하는 다큐 영화 만든다

박영이 감독 “독립운동·조선학교 차별 반대 역사 조명”… 10월 개봉 목표

일본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에 함께 맞선 일본인의 활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된다. ‘소리여 모여라’라는 제목의 영화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오는 10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에는 재일 조선학교 이야기를 다룬 ‘하늘색 심포니’로 델러스아시아영화제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재일동포 3세 박영이 씨가 참여한다.

영화는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1948년 민족학교 폐교에 맞선 한신교육투쟁에 참가한 일본인을 비롯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 규명 활동을 펼쳐온 일본인의 이야기를 담는다.

또 일본 사회가 ‘재일동포의 문화와 언어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선학교 지원 활동에 나서고 차별 중단을 외치는 현지인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재일동포 인권과 조선학교를 돕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연대도 소개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부터 재일동포를 도왔고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지키는 데 함께해온 이들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공생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민모임은 영화 제작비 일부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후원을 희망하는 이는 사이트(www.socialfunch.org/sorione 또는 forms.gle/cWi29dhe55jXELHB6)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창](#)



1. 다큐 영화 '소리여 모여라'의 홍보 포스터
2. 재일동포 3세 박영이 감독



김병주 MBK 회장, 미국 하버포드대 이사회 의장 맡아 한인 최초 미국 대학 이사회 의장... 7월 1일 취임 예정

국내 대형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60) 회장이 모교인 미국 하버포드대학(Haverford College)의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하버포드대학은 3월 6일(현지시간) 김 회장이 현 이사회 의장인 찰스 G. 비버의 후임 의장으로 임명됐으며, 오는 7월 1일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1833년에 설립된 하버포드대학은 인문, 사회, 기초과학, 공학 등 리버럴 아츠가 두드러지는 학부 중심의 사립대학으로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소재한다. 애머스트(Amherst), 윌리엄스(Williams), 스위스모어(Swarthmore), 웨슬리안(Wesleyan) 대학과 함께 '리틀 아이비리그(Little Ivy League)' 대학으로 꼽힌다.

한국계 인사가 미국대학에서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경우는 있지만, 명문대학 이사회 의장에 임명된 것은 김병주 회장이 처음이다. 하버포드대학 이사회는 거버넌스와 연구 분야, 자원 관리 등 대학 운영의 핵심 규정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학 총장을 비롯해 30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버포드대학 이사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MBK장학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카네기홀, 뉴욕 공립도서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NBC 방송 보도국 총괄부사장에 한인 2세 캐서린 김 미국 전역 NBC 보도국 뉴스 제작 총괄 지휘

미국 최대 방송사인 NBC에서 한인 여성이 미국 전역의 보도국 운영을 총괄 지휘하게 됐다. 한인으로는 미국 언론계 최고위직에 오른 것이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인 2세인 캐서린 김 NBC 보도국 수석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SVP)은 최근 보도국 총괄부사장(Executive Vice President)으로 승진 임명됐다.

김 총괄부사장은 앞으로 NBC 보도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뉴스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또한 NBC 유니버설이 소유하고 있는 CNBC, 텔레문도(Telemundo) 및 로컬 미디어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탐사 및 심층 보도도 지휘한다.

미네소타주 출신으로 뉴욕대(NYU)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그는 CBS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60 미닛', '선데이 모닝', '이브닝 뉴스' 등의 프로듀



서를 맡았고, 2009년부터 2년간은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시니어 프로듀서로 근무했다.

2011년 NBC 입사 후에는 '락 센터 워드 브라이언 윌리엄스' 시니어 프로듀서, '데이트라인: 온 어사인먼트' 시니어 프로듀서, 'NBA 나이틀리 뉴스 워드 레스터 홀트' 시니어 프로듀서, NBC 뉴스 디지털 대표 에디터, NBA 뉴스 & MSNBC 디지털 뉴스 부분 글로벌 최고 책임자 등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NBC 보도국 수석부사장을 맡아왔다.




‘한인 1호 영주권자’ 정호현 쿠바 한글학교장 “한국-쿠바 수교로 교류 늘어나 더 바빠질 듯”

아바나 소재 쿠바 한글학교의 정호현(51) 교장은 한국과 쿠바 수교 발표가 있던 2월 14일 휴대전화를 손에 내려놓을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한글학교에 다니는 쿠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셜미디어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붕붕 날아다녔고, ‘믿기지 않아 울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일부 학생은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었다”고 당시 감격을 최근 언론에 전했다.

정 교장은 쿠바 거주 한인 30여명 중 맨 처음 쿠바 영주권을 받은 인물. 방송 기획과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분야를 공부한 정 교장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인 후손 프로그램 제작 때 쿠바를 방문했다가 쿠바에 반해 그대로 눌러앉았다. 2007년엔 현지인과 결혼했고 한국으로 잠시 이주했다가 얼마 후 쿠바로 되돌아갔다. 이런 스토리는 그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화 ‘쿠바의 연인’ (2010)에서 다뤄졌다.

이런 연유로 쿠바 한인들은 그를 ‘정 감독’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 교장은 한때 한국에서 신혼여행 부부와 관광객 발길이 쿠바로 이어지던 때엔 현지를 알고 싶은 이들의 든든한 안내자 역할도 했다.

정 교장은 ‘미수교국’ 당시 쿠바에서 혼인신고부터 출생신고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행정 관련 뭐 하나 선례가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만한 여지도 없었다”는 그는 “한국과 쿠바가 미수교국이다 보니 (국가 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정 교장은 2022년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의 도움을 받아 세운 한글학교 운영 업무에 힘을 쏟으며 ‘쿠바인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양국 수교 후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고 몸도 바빠질 것 같지만 기분은 좋다”고 웃은 뒤 “무엇보다 학술 교류나 언어 교류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학생들의 기대감이 무척 커 그에 부응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순 신임 대한고려인협회장 “상호 교류 네트워크 확대할 것”

사할린 동포 3세… “배경 따지지 않고 같은 공동체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2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사회·법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적인 상호 교류 네트워크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영순(52)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러시아어 객원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고려인 통합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대한고려인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고려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정 회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고려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해 거주국과 모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사회와 모국 사이의 가교로서 적극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고려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와 이슈에 대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단체(NGO)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한인의 극동지역 정착 160주년이기 때문에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를 구분하고 있지만 배경을 따지지 않고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려고 한다”며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이런 의견은 동북아 지역 동포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동평) 등의 입장과는 같다. 동평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고려인 이주’라는 기존 용어의 범위를 사할린 동포와 중국 동포 등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고려인/한인 이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사할린 동포 3세인 그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다. 유



정영순 신임 대한고려인협회장

주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전공해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스크바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수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뒤 2008년 한국에 정착했다. 경상대와 경찰대 등에서 러시아어 교수로 일했고, 러시아 교과과정 중심의 대안학교 ‘러시안 칼리지 부산’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20년 8월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사할린 한인 후손 일러스트 작가 정마리나

“누군가에게 행복이 전해졌으면”

국내 작가 30명 참여한 ‘이음미음 더 플레이스 아트페어’ 개최

패션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는 사할린 한인 후손 정마리나(41) 씨가 2월 27일부터 한 달간 한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정 작가는 이날 개막해 3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근처 이음더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이음미음 더 플레이스 아트페어’에 초청됐다. 이 전시회에는 정 작가를 비롯해 배우 겸 화가로 활동하는 윤송아 등 30명이 함께하고 있다. 전시회는 2월 21일부터 닷새간 VIP 프리뷰를 거쳤다.

이음더플레이스는 1908년 지어진 도시형 한옥을 리모델링한 프라이빗 갤러리다. 원래 전통 한옥과 일본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건물이었으나, 2008년 전통 한옥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정 작가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옥에서 개최되는 국내 첫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양에서 살면서 동양의 문화와 생활, 특히 한옥이란 공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과 상상, 화려함과 평범함, 전통과 현대 사이를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상반된 면을 탐구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편이라고 했다.

정 작가가 과거 디지털 프린팅 방식으로 작업한 ‘꽃들 사이’(Among The Flowers), ‘부러진 꽃이 살아있다’(Broken Flower Alive), ‘마라 원더스 01’(Mara Wonders 01) 등 3점을 출품했다.

정 작가는 “봄이 시작하는 시기라 꽃이 담긴 그림이 어울릴 것 같다”며 “방 안에 아름다운 꽃이 담긴 화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길 바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특히 ‘마라 원더스 01’은 그의 마라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그가 그림 안에서 설정한 가상 인물 ‘마라’는 그리스어로 ‘영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사할린 한인 3세 정마리나 작가

원히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 작가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며 “마음이 아름다움과 공명하고, 행동이 아름다운 생각과 일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 22~23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NFT(대체불가토큰) 코리아 페스티벌 2024’에도 미디어 작품도 출품했다. 올해 이 행사는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를 조명했다.

유주노사할린스크시에서 태어난 정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할아버지를 둔 한인 3세로,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어릴 적 러시아에서 미술학교에 다니며 디자인을 시작했지만, 국내 대학에서 패션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주로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한인 첫 이민 103년 만에 한국-쿠바 수교 한인문화 계승했던 초기 한인촌 마탄사스주 엘볼로 마을엔 기념비만

중미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약 100km를 차로 달리면 마탄사스주(州)의 엘볼로 마을에 닿는다. 아름다운 풍광의 해안가 도로를 거쳐 2시간가량 걸리는 여정 중간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교량(103.5m)인 바구나야구아 다리가 있다.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마냥 지루하지 않은 길이다.

2월 16일(현지시간) 주변 지역 길눈이 밝은 쿠바 토박이 택시기사는 특파원을 태우고 목적지 근처에 와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 길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며 지나쳤던 셋길 쪽으로 잠시 후진한 뒤 비포장 흙바닥 도로로 차를 돌렸다. ‘팝니다’라는 글귀가 나붙은 목조주택 몇 채를 지나 도착한 곳에는, 철제 보호대로 둘러쳐진, 눈에 띄는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2005년 건립된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다.

한국식 기와를 형상화한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원형 중심부를 길쭉한 하얀색 지지대들로 받치고 있는 이 시설은 미국 시애틀 한

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을 받아 세워졌다. 한인 후손들의 요청으로 기념비 출입구 열쇠 등을 보관하며 관리를 맡아주고 있는 마을 주민 마리아 씨는 “저는 1977년부터 이곳, 엘볼로에 살고 있다”며 “이 마을은 예전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엘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 모금 구심점

엘볼로는 1921년 쿠바 첫 한인 이민자들이 대부분 모여 살았던 정착촌이다. 1905년 멕시코로 넘어와 에네켄(애니깽) 농장 등지에서 일하던 일부 이민자가 10여년 후 마나티 항구를 통해 쿠바로 들어온 뒤 마탄사스로 이주해 엘볼로 마을에 터를 잡았다. 이민자들은 이곳에서도 에네켄 수확 등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고국의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학교를 세우고 한인회를 설립해 전통문화를 계승했다고 한다. 엘볼로가 있는 마탄사스는 일제 강



1. 쿠바 마탄사스주에 있는 엘볼로 마을의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모습
2. 엘볼로 마을에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가 서 있다.
3. 엘볼로 마을에 있는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에서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 마르타 임(85) 씨가 표지석을 살피고 있다.
4. 독립운동가 임천택의 딸 마르타 임(임은희·85)씨가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앞에서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점기 지역만리 쿠바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 지역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쿠바 한인들은 임천택(1903~1985·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선생을 중심으로 광복군 후원금 등을 모아 모국에 보냈는데, 이는 '백범일지'에 "쿠바에서는 임천택 등이 임시정부를 후원하고..."라고 서술되기도 했다. 한인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린 지 103년 지나 최근 이뤄진 한국·쿠바 수교를 계기로 찾은 엘볼로에는 그러나 옛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이번 방문길에는 임천택 선생의 딸 마르타 임(임은희·85)씨가 동행했는데, 임씨는 연방 "저곳에 우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이곳엔 집이 없었는데 생겼다", "저 벽돌집 자리에는 원래 나무집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담아서 회상했다.

아바나와 엘볼로 마을을 오가며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문윤미 쿠바 주재 한국 영사협력원도 "마을 중간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고, 그곳에서 윗놀이도 하고 어르신들이 담소도 나눴다고 한다"며 "현재 그 자리는 현지 주민 집 마당으로 변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독립운동가 딸 "수교 계기로 사적지 보존 등 힘썼으면"

마탄사스 시내와 가까운 옛 대한인국민회 마탄사스 지방회관

(1943~1951) 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은 임천택 선생의 자택이기도 했는데, 당시 나무로 지어졌던 집은 허물어지고 시멘트 건물들이 들어섰다. 현재는 1층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한창 엘볼로 마을 주변을 살피던 중 만난 주민 비올레타 로사리오(94)는 "내 주거지가 예전에 한인이 살던 곳이라고 들었다"며 선뜻 집 안으로 안내해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잔뜩 녹슬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쇠창살문을 지나 작은 텃밭을 지나쳐 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높은 천장과 넓은 방이 눈에 들어왔다. 로사리오 씨는 "안쪽도 엄청 넓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가족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며 구석구석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집 내외부 모두 별다른 리모델링 흔적 없이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적지 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엘볼로 마을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매입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 마르타 씨는 "한인 후손과 한국 국민 간 접촉이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면 좋겠다는 게 오랫동안 가졌던 바람"이라며, 이번 수교를 계기로 한인 정착촌과 현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재림 연합뉴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특파원

미국 뉴욕주의회, 삼일절 맞아 '유관순의 날' 제정

한국계 론 김 의원 대표 발의... "저항 정신 기억하자"

미국 뉴욕주의회가 올해 105주년인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지 동포사회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2월 27일(현지시간) 한국계인 론 김(45·한국명 김태석) 뉴욕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그레이스 리·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도 참여했다.

뉴욕주의회는 삼일절 100주년인 2019년 뉴욕주 차원에서 3월 1일을 '3·1운동의 날'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유관순의 날'을 제정했다.



'유관순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미국 동포 및 뉴욕주의회 의원들

결의안은 "올해 3월 1일은 대한민국 독립선언문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식민 지배에 항의한 3·1 운동 105주년"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3·1 운동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유관순 열사는 인권운동의 국가적인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순 열사는 독립과 자결 투쟁에 나선 역사적인 인물"이라며 "그의 희생과 헌신은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미주한인인민사박물관장은 "유관순의 날이 제정되는 순간 뉴욕주의회에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며 "우리 역사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 한인들이 쓴 '대서양 한인 원양어업사' 출간

1970년대 20억달러 외화벌이 사업·서아프리카 민간 외교에도 기여

한국 대서양 원양어업의 전초기지였던 스페인 라스팔마스 거주 한인들이 엮은 '대서양 한인 원양어업사'가 최근 출간됐다. '라스팔마스 한인 어업사 편찬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원양어업사'를 다룬 1부와 '돌이켜 본 지난날의 부족했던 우리들의 대처'인 2부로 구성됐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은 1966년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속 어선인 강화601호가 라스팔마스에 첫 입항을 하면서 대서양의 한인 어업사가 시작됐다. 1970년대 후반에는 라스팔마스의 한국 원양어선이 250여척에 달했고, 이때까지 벌어들인 외화는 20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어부 등 어업에 종사하는 이만도 1만여명이었으며, 라스팔마스 한인도 4천여명에 달했다.



'대서양 한인 원양어업사' 표지

1980년대에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으로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인 서부 사하라 해역이 위축되자, 한인들은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 새로운 서아프리카 어장을 개척해 명맥을 이어갔다.

책은 58년간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사, 흥망과 성쇠, 현지 한인들의 역사도 소개한다. 편찬위원회에는 전직 원양어선 선장, 원양어업회사 대표, 한인회장, 주재원 등이 참여했다.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책 서두 축사에서 "라스팔마스를 중심으로 한 원양어업은 당시 우리 정부와 아프리카 연안국과 외교관계 수립·발전의 일등 공신이였다"며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인천·안산·연해주서 기념사업 추진

국회서 추진위 발대식 열고 본격적 활동 알려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기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북아 지역 동포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동평·이사장 김현동)는 2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평 관계자는 "2024년은 러시아 연해주 지신허(地新墟) 마을에 13가구의 한인이 정착한 후 1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발점인 연해주와 국내 고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의 슬로건은 '세계 코리아인 네트워크와 문화로 유라시아 평화 협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 안내 포스터

력'이다.

추진위는 올해 11월까지 지역별로 조직을 꾸리고 경기 안산시, 인천광역시 등과 협업해 우즈베키스탄 고려 무용단 국내 순회공연, 흥남도 장군 사진전, 고려인 이주 160주년 특 콘서트, 동북아 동포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또 연해주에서는 아리랑 가무단 순회공연, 코리아 미술가 공동 창작 및 전시, 160주년 기념식, 고려인 음악가 기념 공연,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제, 한·중·일·러 예술단 공연, 유라시아 청소년 댄스 대회 등을 진행한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임채완 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장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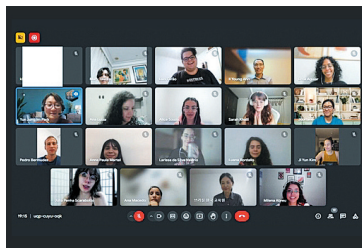
브라질서 현지인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시작... 14명 참가

3~11월 총 180시간 진행...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 부응"

브라질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두 번째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3월 4일(현지시간) 상파울루대학교와 함께 브라질 현지에서 최적화된 한국어 현지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 제2기 개강식을 열었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2023년 11월 제1기 졸업생 16명을 공식 배출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교육원 강사로 임용돼 교육원 직영 강좌 및 현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졸업생들도 브라질 전국 각지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며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제2기 양성 과정에 참여한 학생은 총 14명으로 한국어 실력에 따라 브라질 전역에서 선발됐다. 교육생



2024 브라질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개강식 장면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 제공)

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총 180시간 동안 한국어와 교수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공부하며, 이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원과 상파울루대학교의 공식 수료증이 수여된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제2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상파울루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브라질 현지에서 최적화된 우수한 한국어 교원이 배출되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현지 교원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파울루 대학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학 학부 과정에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남 해남 대흥사 구곡팔봉 두륵산에 안긴 호국 성전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80년 뒤에는 내가 너이로구나’(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이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한 대표적 인물인 서산대사(1520~1604)가 평안도 묘향산에서 입적하기 직전 미리 마련해둔 자신의 영정을 꺼내 든 뒤 그 뒷면에 쓴 시다.

자신의 본마음은 80년 전이나 후나 하나임을 표현한 시구로 풀이된다.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정신을 늘 간직하고 있었음을 상징한다.

서산대사 의발(衣鉢) 간직한 대흥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5천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여 왜군으로부터 평양과 한양을 탈환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전란이 끝나자 서산대사는 선조로부터 받은 벼슬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평안도 묘향산에 들어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며 수도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의발, 즉 가사와 발우를 전남 해남의 대흥사에 보관하라는 유언을 했다. 대흥사를 ‘삼재불입지처(三災不入之處,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 만세불훼지(萬世不毀之地, 만 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땅)’라고 지칭하면서 말이다.

불교에서 승려의 의발은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교법, 즉 법통을 상징한다. 선조가 하사했던 금란 가사와 옥발우, 수저, 염주 등 서산대사의 유품이 옮겨지고, 그의 제자 수백 명도 이주하면서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은 호국 사찰로 거듭났다. 서산의 의발은 현재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굴욕을 씻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정조는 서산대사의 충절을 널리 알리고 후대가 본받기를 바랐다. 1798년 대흥사 경내에 서산을 추모하는 표충사(表忠祠)를 짓게 하고, 편액을 직접 써 하사했다. 서산·사명·처영 대사의 진영(초상화)가 걸려 있는 표충사의 편액은 정조의 친필 휘호다. 표충사에서는 서산대사를 기리는 유교식 제향이 매년 봄·가을 병행된다.

2018년 유네스코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와 함께 대흥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서산대사 제향을 주목하고, 불교와 유교의 공존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

서산대사는 후계 사찰로 대흥사를 왜 지목했을까. 각지를 주유하던 젊은 시절 두륵산과 대흥사를 방문했던 그는 제자들에게 해남은 토양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해 살기 좋고, 한양에서 멀어 정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곳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구곡팔봉(九谷八峰), 즉 아홉 계곡과 여덟 봉우리로 이루어진 두륵산을 배경으로 한 대흥사의 창건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하지만 대흥사 측은 신라 진흥왕 5년(544년)에 아도화상이 이 절을 창건했다는 기록을 따르고 있다. 조선 후기



1



2



3

1. 대흥사 입구의 일주문
2. 대흥사 내 표충사에 전시된 서산대사(가운데), 사명대사(오른쪽), 처영대사 진영(초상화)
3. 최근 건축 공사가 끝난 대흥사 호국대성전
4. 전남 해남의 구곡팔봉 두륵산의 품에 안긴 호국성전 대흥사. 절 뒤로 비로자나 와불 형상의 두륵산 봉우리가 보인다.



4

대흥사에서 대종사 13명, 대강사 13명이 배출됐다.

서산대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 대흥사에는 호국 대성전이 건립되고 있다. 7년여의 공사 끝에 건물 공사가 최근 끝났다. 내부를 꾸미는 작업은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목조 불교 건물로는 국내 최대가 될 호국 대성전에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때 숨진 군인, 독립운동가, 열사는 물론 경찰, 소방관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기리는 제단이 마련된다.

한라산과 마주 보는 두륜산

대흥사 경내에 들어서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대흥사를 빙 둘러싼, 부드러운 두륜산 능선이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산이나 능선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었다.

대흥사는 두륜산이 만든 분지의 한가운데 폭 안겨 있다. 공중에서 보면 여덟 봉우리는 물이 마른 백두산 천지의 축소판 같은 소천지를 만든다. 두륜산을 연꽃이라 치면 대흥사 자리는 꽃 수술에 해당한다.

두륜봉(630m), 가련봉(703m), 노승봉(685m), 고계봉(638m), 향로봉(469m), 혈망봉(379m), 연화봉(613m), 도솔봉(672m)이 대

흥사를 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노승봉에 올라섰을 때 멀리 남쪽에 구름 위로 솟은 한라산이 보였다. 길을 안내한 박충배 전 대흥사 성보박물관장은 10번 이상 두륜산에 올랐지만, 한라산 조망은 처음이라며 반가워했다.

북쪽으로 월출산, 동쪽으로 천관산 등 명산이 보이고 진도, 완도, 강진, 목포 앞 바다가 눈이 시리도록 푸르게 펼쳐졌다. 대흥사 마당에서 올려다보면 두륜봉, 가련봉, 노승봉은 누워 있는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두륜산은 완만한 흠산이지만 실제 올라 보니 암릉 구간이 북한산 의상능선이나 설악산 공룡능선 못지않게 오르기가 까다로웠다. 다행히 나무 데크 계단이 설치돼 있어 위험하지는 않았고, 평일인데도 등산객이 꾸준히 이어졌다.

대흥사에서 처음 지어진 암자였던 만일암 터에는 고려 시대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5층 석탑이 엉거주춤하게 서서 보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수령 1천 200~1천5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다. '천년수'라 불리는 이 나무는 좌우 균형이 잘 잡혀 모양이 일품이다. 그 균형 때문에 1천년 이상의 장구한 시간을 버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창\]](#)

한국-베트남 자녀 모국 체험 방문 활동 격려

한국문화체험단 20명 초청... “차세대 정체성 함양 사업 적극 추진”

재외동포청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한베가족협회 소속 자녀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체험단을 인천시 연수구로 초청해 격려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베트남에서 4천여 가구가 참여하는 한베가족협회는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족 모임으로 2세의 한국 방문사업을 비롯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친정 부모 초청사업, 하나유치원 운영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방한한 체험단은 24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지방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국내 입국한 한국-베트남 자녀 2세 선배들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차세대와 2, 3세 자녀들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외동포청은 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모국 연수,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 장학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러분을 비롯해 전 세계 한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모두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라며 “동포청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여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앞줄 가운데)이 한베가족협회 소속 다문화 자녀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체험단을 2월 21일 인천시 연수구 재외동포청으로 초청해 격려한 뒤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말했다. 이 청장은 참가자들에게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에 나서달라고 당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다.

재난·전쟁·폭동 피해 재외동포 돕는다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해외에서 재난·전쟁·폭동 등을 만나 피해를 본 동포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위난(危難) 상황에 몰린 동포들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 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긴급 구호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예산을 책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위난 상황에 놓인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재외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재외동포청,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MOU 체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계정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이 보안상의 이유로 2013년 폐지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 없으면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동포사회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



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들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져 왔고,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 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의 국민드림 프로젝트과제로 선정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기관들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본격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된다.

동포청은 관계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동시집 '치과로 간 빨래집게'

재미동포 시인 한혜영 / 아동출판 대상상

올해로 등단 35주년을 맞은 재미동포 한혜영(71) 시인이 그간 틈틈이 써온 시 60편을 묶어 동시집 '치과로 간 빨래집게'를 최근 출간했다. 동시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3년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나이 많은 집게들은 / 늙은 사자처럼 이빨이 시원치 않다 / 먹잇감을 사냥할 때의 / 젊은 사자처럼 / 짹 / 물고 있어야 하는데 / 빨래가 조금만 몸부림쳐도 놓쳐버린다" (시 '치과로 간 빨래집게' 일부)

이 표제작은 오래된 빨래집게와 새 빨래집게의 특징을 대비하면서 빨랫줄에 걸린 빨래와 빨래집게를 떠올리게 한다. 빨래집게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



속 친근한 소재다.

시인은 "어린이들이 읽는다고 너무 쉽게 자연을 소재로 아름다운 날말만을 동원해서 쓰는 시여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시, 이미지가 잘 그려지고 메시지가 있는 시를 쓰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출신인 시인은 1989년 잡지 '아동문학연구' 봄호에 동시조로 등단했다. 1994년 '현대시학'과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시와 동시를 함께 써왔다.

시집 '태평양을 다리는 세탁소'와 '뱀 잡는 여자' 등 4권, 동시집 4권, 시조집 1권, 장편소설 1권, 장편 동화 11권 등 21권의 책을 펴냈다. 추강해외문학상 신인상(1997), 미주문학상(2006), 동주해외작가상(2020), 해외꽃시인상(2021) 등을 수상했다.





쿠바 최고 예술대학에 3월부터 한국어 수업 생겼다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인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한 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됐다. 쿠바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에 따르면, 쿠바 예술대학인 ISA(Instituto Superior de Arte)에서 3월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수도 아바나에 있는 ISA는 4년제(일부 학과 5년제) 대학으로, 음악·시각예술·연극 등 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쿠바의 관련 분야 최고 교육기관이다. 현재 이 학교 내 언어 관련 수업 과목은 스페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일본어 등이 있다. ISA는 쿠바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쿠바 한글학교 측에 문의해 강좌를 준비해왔다. 일찌감치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지난 2월 14일 양국이 외교관계를 전격 수립하기로 하면서 이번 강좌 개설이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앞서 쿠바에는 2012년 아바나 국립대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가 있었으나 쿠바 국내 사정으로 2018년 중단됐다.

인천시 '재외동포 웰컴센터' 건립 박차... 6월 5일 개관

인천시가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재외동포 웰컴센터'의 6월 건립 완료를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교육·의료·관광·투자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오는 6월 5일에 맞춰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센터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해 있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부영타워 3층에 1천㎡ 규모로 조성돼 콘퍼런스룸·회의실·상담부스·공유오피스·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인천시는 웰컴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으고 동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할 방침이다.



칠레 한인들, '132명 사망'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남미 칠레에 사는 한인들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발파라이소주(州) 지역에 5천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주칠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칠레 한인회와 개신교계 등 종교단체는 십사일반으로 모은 4천만 페소(5천400만원 상당)를 산불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써 달라며 2월 24일 킬푸에시에 기부했다. 김학재 칠레 대사와 남도우 한인회장 등은 발레리아 마이피안 킬푸에 시장과 만나 산불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한국 정부와 한인 커뮤니티의 연대 뜻을 표명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칠레에 50만 달러(6억6천500만원 상당) 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 삼성과 LG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다양한 물품 기부를 통해 피해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2월 초 발파라이소주를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132명이 사망하고, 1만5천 호가량의 주택이 불탔다. 이번 화재에 대해 칠레 정부는 2010년 대지진(500여명 사망) 이후 최악의 재난이라고 밝혔다.

경제대국 성장 저력, 삼일 정신에 담겼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6위에 올랐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이뤄낸 경이로운 성과다. 일제강점기 모든 물자를 수탈당했고, 1945년 해방 후 5년 만에 한국전이 일어나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수많은 국민이 전쟁과 이념 대립에서 목숨을 잃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오늘날 한국을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올해는 삼일절 105주년을 맞는 해다. 나는 우리의 저력을 3·1정신이라고 생각한다. 1919년 선조들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열악한 식민지에서 비폭력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 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고 26년 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애국 동포들은 멕시코에서 가시투성이인 에네켄을,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를 베면서도 자신들은 굶을지언정 독립자금을 보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근면과 교육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내 아이는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 내 가정과 내 나라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낳았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내 몫을 줄이면서도 행복해했다. 양보와 희생, 배려가 따뜻한 가족을 만들었고 이웃과 정을 쌓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은 채웠으나 정신적 허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나라의 장래가 밝다. 불과 100여 년 전 유관순을 비롯한 3.1만세 운동의 주역들도 모두 청년 학생이었다. 정의를 위해 봉기한 4·19 혁명 주역들, 광주학생운동 등 우리 역사 속의 청년들은 나라를 바로 세운 초석이였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은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안중근·이봉창 의사는 나라를 위해 31살에 목숨을 바쳤고, 윤봉길 의사는 24세에 순국했다. 거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이가



문영숙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작가)

그렇다면 그들은 훨씬 이전부터 나라 걱정을 하고 독립의 결기를 다졌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 제국군에 징집됐다가 중국의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학도 병들도 청년이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을 생각하고 기린다면 지금의 정신적 허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2012년 러시아 여행을 가 그곳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처음 알게 됐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재형이란 인물을 꼭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2년 후인 2014년에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책을 펴냈다.

최 선생은 전설적 삶을 살았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1869년 9살 나이에 낫선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다. 논과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최재형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11세에 가출해 한 러시아 선장을 만났고 이후 6년 동안 이 선장과 함께 상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견문을 넓혔다.

18세에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최 선생은 자신도 동포도 잘사는 길을 걷는다. 세계를 돌며 배운 상술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군납업을 시작한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와 사업수완을 발휘해 '동양의 카네기'라 할 만큼 거부가 됐다.

최 선생은 이 돈으로 현지 여러 한인 마을에 32개 학교를 세워 교육을 장려했다. 러일전쟁에도 참여한 최 선생은 그 직후 일본으로 가서 6개월을 머물며 일본의 야욕을 간파한 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모든 재산을 나라를 위해 내놨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러시아의 '최 페치카'로 불리는 최재형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다. 중국과 만주 러시아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피어린 삶을 알면 인생관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창**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재외선거 안내문

1 본인여부 확인(신분증명서 제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투표장소 및 기간

- ▶ 투표장소: 재외공관(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대체장소) 및 추가투표소
- ▶ 투표기간: 3월 27일(수) 4월 1일(월)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 ▶ 투표시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재외선거관위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월 2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k.nec.go.kr),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투표방법

-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 선거인: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봉합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3 기표 및 봉투 봉합

투표방법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 여권 ·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4 투표함 투입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 기표후 회송용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 및 「정당·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장 동정

- 3월 7일: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 업무 언론 브리핑
- 3월 8일: 국내 교과 과정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현황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3월 11일: 대양주 지역 동포 간담회 개최
- 3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참석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